

#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도입... 예측불허 전대

### 후보 전원 수용 만장일치 통과 과반 득표 없을 땐 2명 결선투표 ‘비안 전선’ 구축 땐 역전 가능

국민의당이 7일 8·27 전당대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 대표 경선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선투표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결선 규정을

비대위에 보고했으나,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규정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준위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도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애초 안 전 대표의 우위가 점쳐졌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은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안 전 대표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경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측은 결선투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따라서 ‘비

안(非安) 전선’을 구축할 경우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정동영·전경배 두 분이 합하면 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지지가 결집 효과”가 나타나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최고위원은 “18대 대선에서 민주당 통합당 문제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네 분이 경선할 때에도 결선투표가 도입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었고, 지지세력이 결집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과 이 유리 사건을 거치며 안 전 대표의 정치위상이 추락하지 않았다”라며 “안 전 대표 측에서 실무상 어려움을 들어 결선투표 도입을 꺼렸다는 점을 보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결선투표 도입과 상관없이 준비

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면서 “결선투표가 도입돼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도 안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당내 의원 상당수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반대세력이 규합할 경우 안 전 대표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 여론을 좌우하는 호남에서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당 최대 지분을 가진 안 전 대표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표 측은 전대 판세를 고려하기에 앞서 안 전 대표가 출마 뜻을 접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전 전 대표와 정 의원의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감은 안 국민의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민의당 호남 및 비례대표 의원 등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물러나 달라” “번복 없다” 안 출마 국민의당 내홍 점입가경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도전 선언으로 촉발된 국민의당 내홍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안 전 대표의 당권도전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 전 대표를 만나 ‘당 재건을 위해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안 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면

담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그의 출마를 재고해달라는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충분히 숙고한 이후 내린 결정”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면

담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면

재건을 위해선 (안 전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 시간이 남은 만큼(후보등록 11일 마감) 전대 출마 선언을 재고해달라”고 하자, “대선 패배후 충분히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는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송기석 의원이, 안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장병완·조배숙·이상돈·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

안 전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불출마를 촉구한 4명의 의원들을 포함, 국민의당 의원 12명은 지난 3일 안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가 대선 패배 후보자로서 책임정치를 실천하고, 직접 관련한 사실은 드러난 바 없지만 대선과정에서의 제보조작 논란 관련해서도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민주당 ‘혁신·적폐청산’ 사단 꾸렸다

### 정당발전위·적폐청산위 출범 위원장에 최재성·박범계



최재성 전 의원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혁신을 논의할 ‘정당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다룰 ‘적폐청산위원회’를 다음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당발전위는 최재성 전 의원이, 적폐청산위는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박원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기구의 명칭 결정과 관련해 “혁신’이 갖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뭔가 자꾸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 취지는 당 발전과 관련된 제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발전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성 시기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끌 일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자고 해서 다음 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당발전위는 당 체질강화와 100만 당원 확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당원·당구 보완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 ‘제안’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당발전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최고위의 의결과 당무위 및 중앙위의 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 일각에서는 정당발전위가 내년 지

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룰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자로 될 인사들이 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정당발전위는 기존 당헌당규를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른 보완을,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제안한다”면서 “(선거에) 뛰는 선수가 룰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당이 직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식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리당원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을 반영한다.

당 안팎에서 추미에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군, 최 전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추 대표 체제의 정당발전위가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한국당 우향우... ‘신보수주의’ 당 강령 추가

자유한국당이 강령에 ‘신(新)보수주의’를 넣기로 하는 등 이념적 표표를 확실하게 하는 한편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8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지난 4~5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논의한 결과, 기존 당 강령에 보완·수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위 이석남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발표한 혁신선언문 내용 중 당 강령에 빠진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강령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우선 ▲신보수주의 ▲서민중심경제 ▲저출산·에너지 문제 ▲국가 보훈 관련 사항 등을 당 강령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혁신선언문에는 포함됐지만, 기존의 강령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도 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을 ‘한미동맹’으로, ‘양국화’는 ‘적자 해소’로, ‘작

은 정부’는 ‘효율적 정부’로 수정한다.

혁신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서민중심경제’는 노동 불평등 해소, 연금격차 줄이기, 주거불안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조직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오는 9일까지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시·도당 위원장 후보는 ▲서울 김선동 ▲부산 이현승 ▲대구 김상훈 ▲인천 민경욱 ▲대전 이은권 ▲울산 정갑순 ▲경기 이우현 ▲강원 이철규 ▲충북 박덕흠 ▲충남 박찬우 ▲경북 김재원 ▲경남 김홍중 등이다.

김정은 복수의 후보로 경선이 예정돼 있고, 전남·전북·광주 등 3개 지역은 신정자가 없어 중앙당에서 후보를 내려보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청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근 린 시 설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공 장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120평 건물614평 매매가 38억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나주 왕곡면 송곡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동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원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350백 시설비 9천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